

‘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성 탐구의 다양한 고전들 ... 개인의 성적 성숙과 함께해야

김정란

시인·상지대 불문과 교수

‘성’의 문제는 어떤 접근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의 지평을 열어놓는다. 사회적인 접근은 주로 성풍속과 매춘, 성의 분배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철학적으로 애해할 때는 관능의 해석에, 정신분석학은 금기와 억압에, 그리고 페미니즘은 성차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 성개방의 미명하에 마구잡이로 생산되는 성적 표현들은 충분한 성숙을 이루기 힘든 대중들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 같지는 않다. 그 모든 음모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댈 수 없는 것은 개인의 성숙에 대한 희망뿐이다.

‘성’이라는 주제처럼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주제도 없을 것이다.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는가에 따라 ‘성’의 문제는 인간적 사실들의 어떤 문제보다도 서로 다른 해석의 지평을 열어놓는다. 사회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때, 그것은 주로 성풍속과 매춘, 성의 분배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철학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관능의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며, 정신분석학은 주로 금기와 억압에, 그리고 페미니즘은 성차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에로티즘’을 본격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바타이유가 잘 이해했던 것처럼 성을 둘러싼 제반 현상들은 한가지 접근방식으로는 그 전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존재 전체를, 더 나아가서 생명현상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쾌락’의 이해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성’을 주제로 한 모든 담론들이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문제는 단순히 ‘성’의 생물학적인 측면, 즉 ‘번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이 동반하는 감각적 차원 즉 ‘쾌락’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존재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라는 사실이다.

‘성’에 대한 모든 빼어난 연구자들이 궁극적으로 귀착한 것은 바로 그 문제였다. 따라서 ‘성’에 대한 모든 담론은 ‘성’의 물적 기초인 육체에 대한 문제에서 그 육체 너머의 문제로, 형이하학에서 형이상학으로 미묘하게 흔들리며 넘어간다. 그것은 ‘성’ 그 자체의 신비이기도 하다. 육체가 그 안에 지니고 있는 관능의 의미는 육체 바탕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거의 언제나 섹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담보하는 정신적 에너지 에로스의 문제이다.

고대철학에서 에로스는 결합과 잉태의 능력으로서 우주생성론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헤시오더스와 파르메니데스에게서 에로스는 사물들을 끌어당기고 생명을 잉태하는 근원적 생명력으로 이해된다. 플라톤의 《향연》에 이르면, 에로스는 한결 더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성적 흥분은

우주론적인 힘이며, 동시에 미(美)를 향해서 영혼을 이끌어가는 안내자이며, 동시에 무지에서 앞으로 이행하도록 부추기는 철학자의 정신이기조차 하다.

그러나 플라톤 이후에 에로스이 이런 철학적 위상을 부여한 서구의 철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육체를 악마의 것으로 간주한 기독교문명, 그리고 이성에 기초를 두고 자연을 정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온 근대적 사유의 권위 아래에서 에로스는 단지 철학자의 아타락시아를 방해하는 정신의 장애로 여겨져 왔을 뿐이다. 쇼펜하우어 정도가 예외적으로 성과 사랑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근대 철학자로 꼽힐 뿐이다.

인류학적 관점의 성풍속

19세기가 되어서야 인류학적 관점에서 성의 풍속들을 다룬 저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8세기 말에 프로이트가 ‘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의 무의식을 조명하고 난 이후에야 이루어진다.

1909년에 발간된 에두아르트 폭스의 《풍속의 역사》는 성풍속을 다룬 이 방면의 명저로 꼽힌다. 1868년에 발간된 파울 프리샤우어의 《세계의 풍속사》는 폭스의 저서를 시·공간적으로 확대 보완하고 있다. 레이턴나힐의 《성의 역사》도 같은 관점에서 성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세 권의 책 모두 번역판이 나와 있다.

그러나 그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속사적인 접근방식으로 씌어진 저서들 안에서 어떤 호사가적인 취미를 만족시켜 주는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다. 결국은 숨겨져 있는가 표면화되었는가의 문제일 뿐, 인간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물적 본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성’을 둘러싼 제반 현상들의 궁극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그런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성풍속에 대한 모든 연구는 인간이 ‘성’을 중심으로 만들어 온 모든 제도가 얼마나 일관되게 여성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억압 위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

이 점에 관해서 별로 부부(번 별로와 보니 별로)가 함께 집필한 《매춘의 역사》는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사례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모아 제시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관된 관점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진지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성에 대한 모든 제도의 궁극적인 문제점은 인류가 성의 문제에 관해서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무수한 여성학 저서의 결론이기도 할 이러한 결론은 사실의 사실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 외에 어떤 본질적인 깨달음도 주지 못한다.

반성적 사유의 실천

프로이트의 발견을 각기 다른 관점에 천착해 고구한 연구자들의 저서에서 우리는 비로소 ‘성’의 문제를 보다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얻게 된다. 1950년대에 발표된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문명》, 바타이유의 《에로티즘》, 그리고 1980년대에 발간된 푸코의 《성의 역사》 등이 그 탁월한 업적들이다.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적 사유의 실천적 전략으로서 이들이 택한 ‘성’의 주제는 그 자체로서 탈근대적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환자 개인의 일상적 관찰과 치료에 국한되어 있었던 프로이트의 이론을 문명 전반에 대한 해석에 적용해봄으로써, 마르쿠제는 현실의 억압을 따돌리는 에로스의 현란한 자기 확신(프로이트가 시인들에게서 보아냈던 “살아 있는 것을 유지시키는 힘”)의 능력에 주목한다. 정신분석학의 초자아는 그에게서 사회 그 자체가 자유로운 개인에게 행사하는 제도적 억압의 규모로 확대된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사회가 ‘야만’으로 타락시킨 본능을 자유로운 사회에서 존재의 해방을 위한 승화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물학적 본능을 더욱 문화적인 형태로 바꾸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는 말년의 프로이트 저작에 혼돈스러운 형태로



나타내기 시작한 리비도와 에로스의 구분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든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된 성욕, 에로스는 그 자체로서 죽음(타나토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이처럼 그에게서 성욕은 궁극적인 자유의 능력으로 변화된다.

푸코의 3부작 《성의 역사》는 성의 문제가 실제로는 권력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 보인다. 그는 성욕을 둘러싼 모든 장치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성적 억압기제들이 미묘하고 위선적인 계급적 장치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앓’의 문제가 성을 다루는 권력의 전략과 너무나 밀접하게, 그 전략의 허구성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사람조차 그것을 완전히 회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하게, 그리고 미시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밝힌다. 마르쿠제의 낙관론은 절망적으로 흔들린다.

내면의 영역에서의 ‘성’

이어서 푸코는 성을 윤리의 영역, 즉 자기주체화의 실천 영역에서 살펴본다. 새로운 윤리학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는 고대 그리스로 되돌아가 자신을 쾌락을 활용하는 ‘성적 주체’로 확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결국 푸코는 성문제의 최종적 해결책을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적인 성숙에서 찾으려 했던 것일까? 제도의 억압과 그 억압의 요체를 충분히 인지하는 개인, 그러나 무턱대고 보편적 타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개인의 주관적 욕망을 가지고 제도에 덤벼드는 대신 그래서 결국은 나가 떨어

지는 대신, 개인적 실천의 장에서 미묘하게 해체를 실천하는 개인? 냉소적인 명민한, 그러나 충분히 삶을 즐기는 비판적인 쾌락 주의자인 개인?

만일 당신이 성문제에 관한 한 충분히 성숙해 있다고 느낀다면, 바타이유의 성에 대한 발작적인 신비주의 저서 《에로티즘》에 덤벼들 수 있다. 그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며 내면적인 영역에서 성의 의미를 탐색한다. 인간은 충분히 성숙했을 때 역사적 사회적 소여들로 규정당한 채로도 충분히 자기만의 원칙에 의하여 자기 자신일 수 있다. 내면의 어떤 영역에서 그 인간은 아예 운명 보편과 관계를 맺어버리는 것이다.

프로이트와 마르쿠제가 죽음의 맞은편에 가져다 놓았던 에로스를 바타이유는 아예 죽음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에 의하면, 에로티즘은 ‘죽음까지 파고 드는 삶’이다. 이 도발적인 언술은 결코 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환희의 절정은 모순되게도 자아의 소멸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바타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비연속적인 자아의 감함을 부수고, 연속적 자아를 회복시켜주는 경험이기 때문이라고 암시한다. 이 생각을 밀어붙이면, 에로티즘은 개별적 자아로서 구분된 비연속적 개인이 연속성 그 자체 즉 신과 합일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간다.

그가 ‘신성’과 ‘고독’과 ‘에로티즘’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이해하는 것은 따라서 조금도 놀랍지 않다. 다만 육체를 쓰느냐 마느냐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13세기의 기독교 신비주의자 십자가의 성요한은 성체 배령을 할 때 음란한 관능적 생각이 잘 끼어든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은 감각이 제 감양으로 최대한 느끼는 환희가 관능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드라큐라 백작 같은 음침한 옷차림에 십자가 목걸이가 잘 어울리는 이유, 에니그마의 관능적인 멜로디가 기묘한 종교적 색채를 띠는 이유는 모두 그렇게 설명된다. 벨기에의 철학자 레비나스는, 사랑하는 사람을 애무하는 연인은 연인의 피부가 아니라 그 피부 너머의 것을 만지려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는다. 가장 가까이 육체를 쓰는 관능은 모순되게도

인간이 알고 있는 감각 중에서 가장 비물질적인 어떤 것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성의 진정한 의미찾기

그러나 과연, 이 정도의 성숙을 사회적 차원에서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성개방의 미명 하에 마구잡이로 생산되는 성적 표현들은 충분한 성숙을 이루기 힘든 대중들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 같지 않다. 모든 것이 상업주의의 횡포 앞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의 상황에서 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기는 너무나 어렵다.

더군다나, 허구가 실재를 압도하는 세계에서 욕망의 순연한 형태를 간직할 수 있는 개인이 얼마나 될까? 작가들조차 앞을 다투어서 교묘한 논리로 위장한 채 성을 상품화시키고 있는 판국에 말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음모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성숙에 대한 희망뿐이다. ❖

“동료를 찾습니다!”

분야: 영어 편집
(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 우편 또는 전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앞서가는 영어교재 출판!

넥서스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61-21
TEL 3949-003 FAX 394-2138